

'안성 고신왕지' 지역 역사문화 가치 입증

장수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조선 초기 국왕 문서 형식·관직제도 보여주는 기록유산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타 관리 중인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안성 고신왕지'는 1414년(태종 14년) 4월 22일 조선 태종이 안성(安省)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며 발급한 사령장이다.

도관찰출척사는 오늘날의 도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관직으로, 조선 초기 지방 행정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서는 초서체로 작성됐으며 발급 연월일 위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특히 경국대전이 정비되기 전 사용된 문서 명칭인 '왕지(王旨)'가 남아 있어 조선 초기 국왕 문서의 형식과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고문서로 의미가 크다.

또한 작성 시기가 이른 조선 초기 문서인 데다, 후손인 광주안씨 사간공후 서령공과 계암종중이 오랜 기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 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지정 예고는 2026년도 국가지정문화유산위원회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

동신분과 제1차 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2일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국가지정문화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현재 '안성 고신왕지'는 광주 안씨 사간공후 서령공과 계암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며,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타 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지정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안성 고신왕지의 보물 지정 예고는 장수군이 간직한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며 "최종 보물 지정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수성당, 개양할미의 너른 품' 개최

부안군,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11일 개막

부안군은 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전통예술원 타무, 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주관하는 2026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수성당, 개양할미의 너른 품'이 오는 1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자연(바다의 소리를 잊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농악 및 띠밧놀이와 같은 전통 공동체 의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 신화가 다시 화해하고 상상하는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치유와 희망의 종합 연희극이다.

특히 이번 상설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부안농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문예술단체인 전통예술원 타무가 주축이 돼 무대를 이끈다.

전문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위에 전통예술원 타무가 선보이는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농악 연희가 생동감 있게 무대 위를 수놓으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다.

총 5마당으로 구성된 극은 집을 나간 엄마(개양할미)를 찾아 부안 바닷가를 헤매는 막내딸의 여정을 그린다.

기후 변화로 지친 철새 도요새로부터 거 거 바다를 메우고 배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나막신 밧소리에 대한 기억을 전해 듣고 부안농악패와의 만남을 거쳐 띠밧놀이(용왕굿)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애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5마당에서는 거대한 도요새가 바람을 타고 돌아오며 모든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대동의 생명 맞이 굿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공연은 오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말 저녁 7시에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성당 및 매창테마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우천 시에는 부안예술회관으로 장소를 옮



겨 관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스탬프 투어도 마련된다.

재활용 베갯솜을 활용해 소원을 담아보는 '소원조기 만들기', 환경해설사와 함께 부안 바다 전설을 듣고 바다 쓰레기를 낚는 '전설로 만나는 부안 바다 이야기', 바다 살리기 약속을 적는 '만신기 약속문 적기' 등 3가지 체험이 운영된다. 모든 체험에 참여해 스탬프를 완료한 관객에게는 본 공연의 특별 MD 상품이 증정된다.

티켓 가격은 일반 5000원이며 네이버 온라인 예매(수성당, 개양할미의 너른 품 검색) 시 4000원으로 할인된다.

이 외에도 예술인패스, 전북투어패스 소지자, 전북도민 및 부안군민, 청소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 7세 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은 증빙 서류 지참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 대표 관광자원 집중 홍보 나서

전북자치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서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인 '제11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에 참가해 전북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판로 확대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관광의 우수한 매력을 알리고, 관광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광상품 홍보와 비즈니스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시·군의 대표 관광

지와 여름 축제, 체험관광, 미식, 드라마·영화 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홍보관에서는 전북 관광 홍보영상 상영과 관광 안내자료 배포를 비롯해 전북 관광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 드라마·영화 촬영지 맞추기 퀴즈, 방명록 작성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여행사를 홍보관에 배치하여 여행업계 관계자와의 세일즈 및 B2B 상담을 진행하고, 전북 관광상품 홍보와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도 확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공모

전통 판소리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전국민 참여형 창작 공모전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추진된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판소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공모전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 AI 판소리 한마당 : 新소리, 新마당'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소리 기반 영상을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접수는 6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영상 파일 등을 ZIP 파일로 압축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이와 경력, 지역 제한은 없다.

출품 작품은 2분 이상 3분 이하의 AVI 또는 MP4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해상도는 Full HD 1080p 이상이다.

영상 형식은 실사 촬영,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 제한이 없으며 음악과 영상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해야 한다.

작품에는 AI 활용 제작 콘텐츠를 영상 시작 또는 종료 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6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온라인과 현장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선정작은 7월 중 소리축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온라인 '좋아요'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소리축제 놀이마당 야외 특설무대에서 현장 QR 투표가 병행돼 관객 참여형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 결과는 온라인과 현장 투표를 종합해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등 총 3팀이 선정되며 8월 중 발표된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 왕과 인물로 만나는 백제 역사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백제 중흥기를 이끈 왕과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백제 장인을 만나보는 역사탐방을 운영한다.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은 7월 '역사탐방-백제의 왕과 인물' 프로그램을 오는 25~26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역사탐방-백제의 왕과 인물'은 백제문화체험관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7월 프로그램은 백제 중흥기를 이끈 '무령

왕'과 무령왕비의 은팔찌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장인 '다리'를 주제로 마련됐다. 교육은 단순한 역사 설명을 넘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고 백제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오늘날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백제 시대 공예품을 통해 당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배우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